

BLIZZARD
ENTERTAINMENT

STAR CRAFT®

WAR CHEST



Carlos Ruiz

암흑 전쟁

제 11 부

MATT
BURNS

CARLOS
RODRÍGUEZ

SANDRA
MOLINA

STARCRRAFT WAR CHEST

암흑 전쟁 제 11 부

MATT BURNS 글

YOOSHIN YANG 번역

CARLOS RODRÍGUEZ 그림

SANDRA MOLINA 채색

JIHYE SOPHIA HONG 식자

ALLISON IRONS 교열 편집자

MATT BURNS 편집

PAUL MORRISSEY 수석 편집자

CARLOS RODRÍGUEZ 표지

SANDRA MOLINA

JOHN J. HILL 그래픽 디자인

GEORGE KRSTIC 크리에이티브 자문

ROB MCNAUGHTON

VALERIE WATROUS

MADI BUCKINGHAM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CHRISTI KUGLER

JUSTIN PARKER

FELICE HUANG 프로듀서

PABLO A. LLOREDA

BRIE M LOFTIS

TIM MORTEN

ELENA NIKORA

STEPHANIE PADDOCK

CHARLOTTE RACIOPPO

JASON SAVOPOLOS

JEFF WONG

BYRON PARNELL 글로벌 라이선싱 디렉터

RALPH SANCHEZ 크리에이티브 개발 디렉터

DAVID MACHO-GÓMEZ 도움 주신 분

기어 스토어에서 다른 블리자드 상품을 살펴보세요.
GEAR.BLIZZARD.COM



STARCRRAFT: WAR CHEST - 암흑 전쟁, 제 11 부 © 2018 Blizzard Entertainment, Inc. All rights reserved. StarCraft and Blizzard Entertainment are trademarks and/or registered trademarks of Blizzard Entertainment, Inc.,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BLIZZARD
ENTERTAINMENT

젠장 엘름스,
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전부 우리를
배신하는 거야?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지.

노바 일행이 아니야.
노바는 약속을 지켰어.

다른 녀석 밑에서
움직이는 녀석이야.
확실히 알겠어.

..조금쯤은 챙겨도
되겠지. 몇 조각
없어진다고 해도
아무도 모를 테니..

놈들의 생각이 들려.
조름이 여기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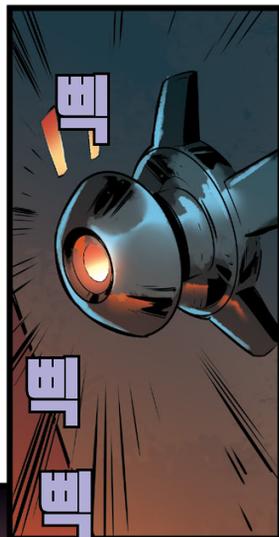
응, 이 쓰레기
행성에서 떠나자.

우주선이
크게 손상됐어.
엔진이 얼마나 버틸지
장담할 수가-



뭐라고?

뭐든 꼭 붙잡아.
많이 흔들릴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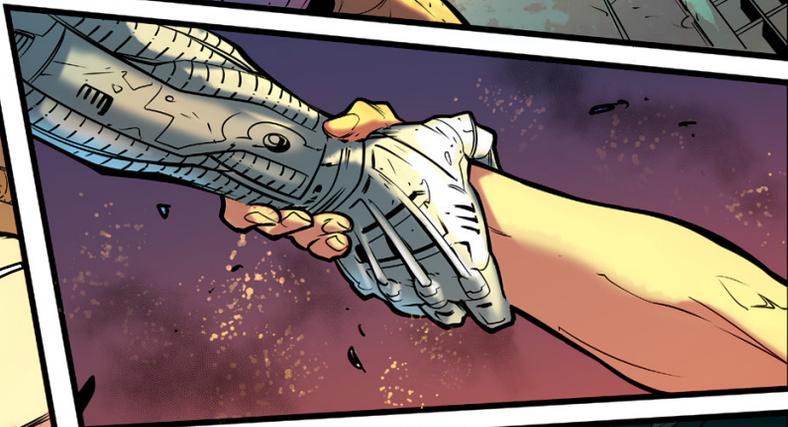
좀 도와줄 거야,
거기 그러고만
있을 거야?

네게 달렸어.
다시 나한테
총을 쏠 거야?



엘름스!
도와달라고!

엘름스!



우주선을 제어할
수가 없어!



쿠과
과과과과광







누구 밑에서
일하나?



스캔 결과도 그가
보낸 것과 일치하는군.
이게 그 우주선이야.

수색 및 격멸이
최우선 과제다.
화물 회수는...

누구 밑에서
일하나?



그자는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거야.
자치령 고위 간부니까.

우릴 배신하려 하면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공개하면 그만이지.

자치령?



누구 밑에서
일하나?

하는 짓은 오히려
범죄 조직 두목 같더군.
그자 이름은--



호가스 함장.



그 추잡한
취새끼가
우릴 어떻게
찾아낸 거지?

아테나 사건이
발생한 후 자치령이
우리 우주선을 탐지한
것일 수도 있어.
호가스의 함대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혹시 워낙 부패한 녀석이라
이쪽에도 연락책이 있는 건
아닐까? 조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수도 있잖아?



그자는 잊어버려.
돈은 이미 받았으니까
또 사람을 죽일 일이
생기기 전에 그냥
여길 떠나자고.



타앙



그 망할 녀석은
돈을 벌겠다고
아테나에서 전쟁을
일으키다시피 했어.
이제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우리뿐이고.

그래. 그자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우리가 죽거나...
자기가 죽기 전까진.

해병 두 명이
자치령 함장을
상대하겠다고.
결과가 아주
불만하겠어.

지원군이 있잖아.
노바 말이야.



뭐든 부탁을 하면
신세를 지는 셈이 돼.

문제가 또 생기면
연락하라고 했잖아.
도와줄 거야.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지.

그래, 우리가
부자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돈을 원하진
않을 거야.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평생 불안함에 떨며
숨 죽인 채 살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어.
그런 게 네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야,
엘름스?



젠장.



일이 개판이 되더라도
날 탓하지는 말라고.

다음 편에 계속...